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南都泳 主幹 宋赫 編輯部長 申寬浩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國大学校内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1~9 本社直通 ㉓8498
每週月曜日發行

今週一言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故常無欲以觀其妙
常有欲以觀其徼
此兩者同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社說 3
學術 4
文藝 5
社會 6
學園 7
體育 8

豫算執行制도 刷新

17日, 学處長會議서 決定

物品購入등 一元化

로스 防止, 適期支給되게

總務處서 業務管掌

학교당국은 본교의 각部処, 棟閣의 豫算執行制度를 더욱적으로 刷新, 合理的인 運用을 기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오전 学処長회의에서는, 豫算執行制度의 확립에 따라, 앞으로 大学内 모든 棟閣의 物品購入은 総務処에서 一元化하여 公正한 購入과 適期支給을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大学, 学科, 부설棟閣 自治会등 각종 棟閣은 매달 25일까지 다음달에 必要로하는 豫算및 物品要請書를 総務処에 提出해야한다. 이요청서에 따라 総務処에서는 経済企画院 및 조달청, 物価調査月報, 生産性本部등의 物価에 대한 客観的인 평가를 土台로 豫算支給및 物品購入을 하고, 適期에 맞추어 物品도 改正된 学則에 관한 사항중 準則을 学処長会議에서 결의한 豫算執行制度의 확립에 따라, 앞으로 大学内 모든 棟閣의 物品購入은 総務処에서 一元化하여 公正한 購入과 適期支給을 지향하게 되었다. 새에는 각종 事務用品등 소모품, 備品, 실험실습용기재 및 악품, 図書購入등이 포함되며 出版部가 独立하기 전까지는 論文集, 学会誌, 弘報冊子등 各種出版物의 発刊費支給에도 적용된다.

또한 総務処에서는 備品保管도 一元化하여 관장하게 되었으며 年学期末마다 施設·器材·備品등을 監事하게 된다.

이날 学処長회의에서는 이러한 豫算執行上의 刷新으로부터 身分上의 処罰을 받았을때는 自動的으로 学籍을 喪失한다는 것 등이다.

차람증追加발급

1次2천여명분

도서관에서는 오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도서차람증을 추가발급한다.

도서관은 지난달31일까지 총 1천7백80명분의 차람증을 발행했으나 아직도미발급자가많아 추가발급이불가피하게 되었다.

모든 도서를 『차람증』만으로 대출하게되므로 차람증의신청은사진1매를 준비하여 동학영업과에 제시하면된다.

이와 관련 도서관에서는 『미납금기간이 지난뒤의 차람증 발급은 不可하다』고 말하고 『차후 도서대출에있어 延滯하는 일이없도록 하라』고 부탁했다.

同窓會장학금

3명, 등록금전액지급

同窓会 (회장=崔載九) 에서는 장학생으로 숭인, 수업료일체와 기성회비등을 부담 지급키로 했다.

이번 동창회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국문과 3학년 金秀子 ▲영문과 3학년 李貞淑 ▲사학과 3학년 李鍾淑 ▲불교학과 3학년 李鍾淑 ▲정외과 3학년 李鍾淑 ▲경제과 3학년 李鍾淑 ▲무역과 3학년 李鍾淑 ▲회계과 3학년 李鍾淑 ▲행정과 3학년 李鍾淑 ▲법학과 3학년 李鍾淑 ▲상학과 3학년 李鍾淑 ▲농학과 3학년 李鍾淑 ▲축산과 3학년 李鍾淑 ▲원예과 3학년 李鍾淑 ▲임학과 3학년 李鍾淑 ▲산림과 3학년 李鍾淑 ▲농공과 3학년 李鍾淑 ▲농화학과 3학년 李鍾淑 ▲농경과 3학년 李鍾淑 ▲농업경제과 3학년 李鍾淑 ▲농업교육과 3학년 李鍾淑 ▲농업토목과 3학년 李鍾淑 ▲농업기계과 3학년 李鍾淑 ▲농업기술과 3학년 李鍾淑 ▲농업기술과 3학년 李鍾淑 ▲농업기술

東大發展을 위한 轉機

社說

學生數에 이르렀으며 教授陣도 120名을 헤아리게 되었다。이 같은 東大의 發展은 學生과 教授 그리고 職員 모두의 努力과 協力의 結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東大는 새로운 發展을 위한 轉機를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東大의 發展을 위한 새로운 敷地의 擴張이다。

東大는 지금 校舍의 增築을 위한 敷地가 없어 困難을 겪고 있다。

學生數는 增加하는데 校舍는 增築할 敷地가 없어 學生들은 좁은 敎室에서 不便을 겪고 있다。

敎授들은 研究室이 없어 學生들과 接觸할 機會가 적어 學生指導에 支障을 받고 있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東大는 敷地擴張을 計劃하고 있다。

敷地擴張은 東大의 發展을 위한 絶對的인 條件이

西獨의 東方政策 및 중쏘紛爭

K·메네르트博士 講演要旨

□…… 다음은 지난 12일 본교주최로 중강당에서 열 ……□
□…… 렸던 「K·메네르트」博士의 강연요지이다。 ……□
□…… 독의 정치학자 「메네르트」박사는 政治思想과 ……□
□…… 東西関係연구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있다。 ……□
□…… 서독정부의 쏘련에 대한 정책을 줄곧 자문 ……□
□…… 해온 박사는 현재 서독정부의 東方政策을 ……□
□…… 이끌고 있으며 특히 서독과 중공관계의 友 ……□
□…… 好를 試図、両頭의 断交 이후 14년만에 처 ……□
□…… 음으로 작년 4월 北京의 초청을 받았다。 ……□

오늘의 講演要旨는 独逸政府의 쏘련 및 東欧羅巴 여러나라와의 관계및 독일의 分断問題를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가라는 내용이다。

오늘날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한국、월남、독일의 세나라가 분단되어있다。

이들 세나라들은 분단국이라는 똑같은 상황하에 처해 있긴해도 제나름대로의 배경이다르다。

그러나 이들 세나라는 類似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이들 세나라의 입장을 밝혀보려한다。월남은 지금도 한창 전쟁이 진행중에 있으며 한국 역시 1950년 同族相爭의 비극으로 南北同의 교류및 대화는 단절되어있다。

독일은 다행히도 東西同의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両独의 관계는 조금 여의하게 되어 가고 있다。한가지 例를 들면 노동력을 상실한 약백만명의 東独 年老者들이 매년 西独을 방문하고 있으며 성탄절이면 서독에 친지 들이 東独으로 선물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復活節에는 50万名의 西独人이 東独을 방문한 바도 있다。

이러한 東西独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独逸統一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両独이 모두 国際的인 불력에 얽혀져 있기 때문이다。西独은 NATO(北大西洋条約機構)、EEC(유럽共同市場) 등에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東独은 와 両国中 한나라의 武力으로서 統独이 이루워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만약 東独이 무력으로 현경계를 위태롭게 할때 NATO는 즉각압력을 고조시킬것이다。

다음으로 서독의 동방정책의 2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국면은 「콘라드·아데나워」首相시절의 정책인데 아데나워수상은 서방국가와는 흑接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을뿐 동방에는 소홀했다。

그러나 아데나워수상의 서구접근정책은 결과적으로 독일의 경제부흥을 가져왔으며 동방정책의 밑바탕을 구축하는데 큰힘이 되었다。

둘째국면은 브란트의 정책이다。이것은 서방측과의 유대를 버리지않고 동방측과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독일의 동방정책은 전쟁전에 東쪽에서 독일영토가 많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에 있는데 (현재폴랜드영토) 그중에서도 베를린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 생각한다。

서독의 동방정책의 根幹이 되는 2가지정책은。

1、東独및 제3국과의 관계개선

2、서독、쏘련간의 관계개선

등을 들수있는데 동구여러나라와의 접촉은 모스크바의 방해로 西独측은 무엇보다도 모스크바와의 관계개선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믿고있다。

모스크바와의 관계개선은 오랜시간이 걸렸는데 서독에 대한 쏘련의 선전공세는 1969년3월초에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이때에 서독은 대통령선거를 베르린에서 가져 서베르린의 서독 종속화를 과시하려고 하였는데 모스코바가 이들 일천명의 선거인단의 베르린 입성방해공작으로 철도는 물론공로마저 차단、서독과 소련의 관계는 매우 심각해졌다。그무렵 쏘련과 中共은 우수리강 연안에서 충돌했고、쏘련측은 아시아쪽의 위협에 부심하게 되어 유럽쪽의 평화를 원하게 되었다。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西独과의 관계개선이라고 할수있다。

같은해(1969)「본」과「모스크바」에서 현상이 시작되었고 1970년8월「본」「모스크바」와의 条約이 서명되었다。

이해 12월에는 「폴란드」와의 조약도 체결되었는데 이 두 조약의 내용은 西独側에게 失地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내용의 것으로 현재 폴랜드영토에 편입해 있는 独逸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영토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브란트수상의 연방정부는 영토상실 대신에 이를 밑바탕으로 동구라파 제국들과의 관계개선에 유리한 고지를 가지는 정책결정으로 이것을 인정한 것이다。

서독측은 이 조약을 통해 동、서독의 재통일을 영원히 포기한 것이아니라 東西独의 현경계를 무력으로 바꿀수도 있으나、이보다는 상호이해에 의해 달라질수도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두조약이 비준될것인지 안될것인지 우리는 아직모른다。이결과는 5월6일경에 밝혀질것이다。이두조약이 통과되면 외무성에 의해 법적인 절차가 밟어지게될 것이다。이 비준여부에 앞서 우리는 연방의회에 어느 당이 다수를 점하는가에 신경을쓰고있다 여당은 조약비준을 찬성하나 야당은 반대의견을가지고있다。야당은 비준반대가 내각의 실각으로 연결되며이로인해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하는속셈이다。

나자신은 이 조약이 비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두조약이 비준되면 쏘련및 동유럽에 관한 관계개선은 실현될 것이며 지금 쏘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구유럽의 여러나라는 전통적으로 독일과 가까워 독일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이러한 것은 東西의 긴장완화에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동구(체코·폴랜드)등도 사실상 긴장완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두려워 하는 오직 한나라는 바로 東独이다。東独이 긴장완화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西独은 이두조약이 동독의 지도층에 압력을 가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두개의 동방조약은 독일의 영원한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統独의 열망을 약속하는 조약이 되는 셈이다。

우리는 西独에 정식으로 허가된 공산당을 가지고 있으나 당원이 거의없어 공산당은 그들의대표를 의회에보낼수없다。그러므로 해서 서독정부는 공산당 출신의원의 불모로인해 동구의 공산국과 접촉을해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

유럽의 전통적인 상황을 보면 서구측이 동구측에 다가서려는 욕망보다 동구측이 서구측으로 다가서려는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동구측에서 1960년대초에 동서독의 경계에 장벽을 쌓아놓고 동독인의 서독탈출을막아버렸다。

이런 현실에서는 우리가 동구측에 상실당한 영토를 포기하는 대신 현상태에서 동독을 계획하는 것이 유리함으로 이조약의 체결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수있다。

나는 독일국민들의 지금 현재상황에서의 통일독일을 원하든 않든 그문제는 중요시않지만 독일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키워가는것을 무척 중요시하고 싶다。

독일의 유엔가입에 대한 견해는 한마디로 들이 다 加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되는바 둘이다 가입치못하는 것이 내구미에는 맞는다고 할수있다。만약 東独이 유엔에 가입하고자 하면 서방자유진영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며 역시 西独의 가입시에도 쏘련측의 비토권행사가 뚜렷한 이마당에서는 유엔가입을 둘러싸고 独逸문제가 국제무대에 올려지는 것을 나 자신은 반대한다。그것은 독일문제가 자꾸 국제무대에나서면 나설수록 統独에 대한 해결방안은 더 묘연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결론적으로 독일이 동방조약의 체결과、그외에 諸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전유럽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독일이 되는 것을 원한다。

한국의 분단문제에 대한 해결 책은 근본적으로 독일의 분단과 한국의 분단과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단언 지을 수는 없다。

한국은 독일과 달라서 동일된 조국을 강력히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경제적인 자립의 좋은 모멘트가 될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統一보다는 한국의 統一은 더시급하다고 볼수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주로해서 가족찾기 운동을 벌리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독일이 지난번 부활절과 같은 人情의 대화를 가지게 된것도 처음시작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했다고 볼때 남북적십자회담이 성공리 끝날 것을 기대한다。

〈尹泰京기자〉

兩獨유엔同時加入不願

東歐接近은 對쏘관계 改善先行으로

두 東方條約 비준支持

◇베르린大学의 「R.뢰벤탈」필른大学「B.마이스너」博士와 함께 西独政治学界의 三大主流를 이루고있는 「메네르트」박사는 현재全유럽에서 손꼽히고있는 「東欧羅巴연구소」所長으로 활약하고있다。

大學주변풍토의 反省

学究的風土조성 시급해

商業性띈 퇴폐는 止揚해야

林聖奎 〈法政大 稽行科〉

壇論学生

일반적으로 대학의 주변을 일컬어 大学街라고 한다。大学街는 大学人의 지성과 낭만이 직결되어 그 大学의 風土까지도 反映하는 虛実을 內包하는 것이다。

대학에 몸을 담고 대학의 양심을 호흡하며 学問의 길로 걸어가는 大学人의 자세는 学究的이어야 한다。

그러나 象牙塔이라고 일컬어지는 캠퍼스 주변은 学究的이기 보다는 다분히 商業的이고、非生産的 체제로 그 난매상이 드러나고 있다。

大学街는 학문을 진작하고 대학의 使命의 완수를 위한 분위기가 造成되어 있어야 한다。

무릇 대학이란 眞理를 탐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社会的으로는 학문하는 사람들의 共同体이며、교육기관으로서는 最高学部인 것이다。따라서 大学이 목적하는 바는 国家와 人類社会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学術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敎授硏究하며 인격을 陶冶하는데있다。

대학교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타고난 개성과 소질을 육성시키고 닦아 인격형성과 학문의 진리탐구를 위하여 精進해야 될줄로안다。

大学의 이러한 使命의 완수를 위해서는 면학과 수련에 끝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다。그러므로 캠퍼스 주변 즉 大学街는 직접적·간접적으로 大学의 使命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大学街 풍토는 어떠한가。오늘의 大学街는 이상야릇한 풍토속에서 착각되고、왜곡되고、오도된 패기(?)와 활기에 차있는 것같다。안일한 사고방식의 부산물들이 우쭐대고있는 것같다。

최근 某월간지에서는 大学街 実態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통계숫자로 뒷받침한 이 글에서는 大学街는 『먹고、입고、당구치면 없다』라는 말로 가장 간단명료하게 정의할 수있다고 했다。

大学街에 즐비하게 서 있는 것은 대학의 사명인 학문과 지식을 연마하는데 보조할 서점이 아니라 철저한 消費性向의 집단들만이 위용스럽게 그 자태를 과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대학가=당구장+다방+술집+…」의 아이러닉한 대학가의 이미지가 내린다고 한다。「섰다」하면 다방이나 당구장이건만 영락없이 好景氣라고 한다。

文化와 학문과 국가의 발전을 짊어지고 있는 責任的大学은 아랑곳없이 이러한 방향각각을 상실한 듯한 大学人의 대열이 줄지을 때 오늘날 大学生들의 그 속을 환히 내다볼 수 있는것이다。

某女大앞은 무려 84개의 양장점이「쇼윈도」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某大学은 52개의 술집으로 파묻혀있다。「케세라」와「니나노」가락의 풍조가 대학 주변을 메우고 있고、「먹고 보자」「입고 보자」「쓰고 보자」등의「~고보자」는 퇴폐적인 철학이 大学을 휩쓸고 있는 것같다。

물론 大学人은 젊음을 향유하고 낭만을 만끽해야 한다。그러나 철학이 없으면 낭만도 무의미한것이다。

大学의 본질인 탐구와 연구를 회피하고 도외시하는 대학풍토는 大学街의 書店 숫자에서도 체크할수있다。대학가에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며 번창해야 할 書店이、그 不毛地帶가 되어가는 참으로 奇現象을 빚고있다。민족을 지켜나갈 최고의 聖地요、심장인 대학이 이런 병적인 현실상황속에서 타락적 요인을 드러낸다는 것은 암담하기만 하다。

大学街가 오늘의 한국을 대변하고 있다면 우리 겨레와 조국의 미래는 암담한 결과가 된다。

몇해전만해도 분교 교문앞에 구내서점과 함께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던 서점 하나는 오도된 大学街의 풍조로 문을 닫고 말았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本校의경우、구내서점의 전공서적구입이외에는 주변에서 冊을구할 書店은 찾기 힘들다。

책을 사는 사람이 없기때문이다。소위 종합大学이라는 곳의 대학가에 書店한곳 없고 구내서점마저 교재판매의 일시적인 현상이니 大学人으로부터의 기대란 뻔한노릇이 아닌가。안일과 향락과 적당주의와 사치와 無思考와 無意識의 탁류를 大学人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겠다。어설프고 왜곡된 大学街의 풍조가 씻어지는날 진정한 대학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것이다。

우리 各自가 자신의 위치를알고 大学街 풍토의 개선을위해 새로운 각도의 不断한 努力을 경주할 때 비로소 대학가의 인식은 달라질것으로 본다。

북한산 寺址소개

제3회 東國人登山大會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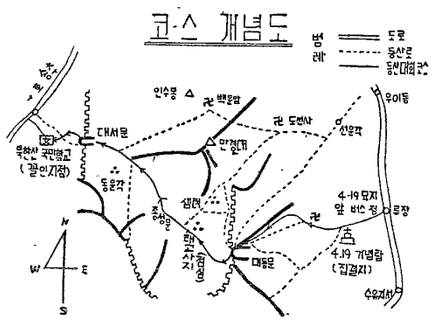
「제3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수일내로 박두했다。수유리 4·19紀念塔을 出発地點으로 하여 北漢山城의 大東门을 거쳐 太古寺,重興寺址,中成门을지나 大西门에이르는 이번 大会의「코오스」는 一日登行路로써 必須的인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있고,역사적으로도 매우 유서깊은 곳이기에,登行 가이드를 겸하여 몇 史蹟을 소개코자한다。

李載昌 〈仏大교수·東国山岳会理事〉

城壁등 先人의 자취

僧兵지휘하던 寺址도

코스 개념도



4·19기념탑에서 출발하여 가쁜 숨을 몰아쉬며 1시간 남짓 올라가면 普賢峰 万景臺간의 농선에 오르게 되는데、이 농선에 있는 石築城壁이 곧 北漢山城이요 우리가 여기서 통과하게 되는 石门이 大東门이다。

李朝 숙종時에 築城된 이 山城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즉 임진왜란·李括乱·병자호란 등을 겪고난 李朝는 한번 兵乱이 일어나면 서울의 都城은 守禦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게 되었다。사실 강화도나 南漢山城의 경우도 淸軍의 来侵時 의지할 곳이 못된다는 것이 증명된바가 있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固守할 수 있는 최후의 근거지를 마련하여 城壁을 築造할 필요를 통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論議는 이미 宣祖때부터 있었다。漢陰 李德馨같은 이는 北漢山 重興洞도 고려시대의 山城이 있었던 만큼 그곳에 城을 쌓는 것이 上策이라 주장하고 単身으로 이곳을 답사하여 맹렬히 力說한바가 있었고 효종時의 宋時烈도 같은 주장을 한바가 있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드디어 숙종 37년(1711)4월 3일 北漢山의 築城의 착공을 보게 되었다。

이 山城의 築城은 훈련도감·禁衛営·어영청등의 三軍门에서 分担하였는데 특히 求礼 화엄사의 聖能이 部下僧軍을 거느리고 와서 築城을 도와 큰공을세운바가있다。

숙종 37년 9월에 준공을 본 이 山城은 만경대·백운대·원효봉·普賢峰등 北漢山의 여러 산봉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쌓은 석축성벽으로 그 높이는 평균 18척이며 두께는 9척이고 둘레의 全長은 20里에 달하고 있다。

또 20里길이의 성둘레에는 요소에 城门이 열넷이나 있었고 동장대 남장대·북한대의 三将臺가 있었는데 城门中 현존하는 것으로는 이 산성의 正门인 大西门을 위시하여 대남문·대성문·대동문·中城门·輔国门·竜岩门 등이다。

당시 이 北漢山城안에는 訓営·禁営·御営 등의 병영을 두어 수비병 1천명과 僧兵 4백명을 배치하였는데 僧兵大将이 총사령관격이었었다。또 이 山城內에는 北漢山雄営이라는 行官이 있었고 이밖에도 北漢誌에 보면 「城廓이 143、연못이 26、우물이 99、교량이 7、누각이 3개소나 있었다고 하니 이 山城內의 규모를 짐작할만하다고 하겠다。

山城이 이룩되었을 당시에는 이 城안팎에 香林·積石·僧伽·三千·津寬·道城·文殊·登聖·重興·竜巖·輔国·普光·円覺·国寧·祥雲·太古 鎭国·元曉 등 여러 寺院이 있었는데 그중 이번에는 太古寺와 重興寺址를 지나게 된다。

太古寺는 大宗门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노라면 약 15분 정도의 거리에있다。

이 절은 6·25때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었는데 근년에 일부 재건되고 있다。본시 이 절은 李朝때에는 重興寺에 부속된 小庵子였지만 高麗末의 高僧 普愚大師가 스스로 太古라 號지어 부르고 住錫하던 곳이거서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절이다。

이 절 남쪽지점에는 円証国師의 塔碑가 현존하고 있는데 円証国師란 곧 太古大師인바 碑는 麗末의 頌学인 李穡의 글에 権鑄가 썼고 禑王 11年(1385)에 세워진 것이다。또 이 碑가 있는 근처에는 浮屠와 石塔도 남아있어 역사와 불교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太古寺에서 서북으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지금은 그 터에 주춧돌만이 쓸쓸히 남아 있는 重興寺址가 있다。현재는 빈 터지만 당시에는 이 北漢山城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으뜸가는 절이었었다。136向의 규모를 가졌던 이 절에는 나라안에서 가장 학덕이 높은 스님으로 하여금 八道都総攝을 삼아 常住케하였는데 그는 이 절에서 城內의 僧兵을 指揮함은 물론 全国의 僧兵을 총지휘하였었다。

또 이절은 왕실에서 쓰는 藥材를 調製하는 등 寺格이 매우 높았는데 갑오경장 이후 僧兵이 解散되고부터 落莫하다가 1915年 여름의 큰 호우때 노적봉의 山崩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이 重要寺址에서 中成门을 거쳐 大西门에 이르는 길에도 도처에 크고 작은 숱한 先人의 자취가 깔려있으나 登行時 各自 유심히 살피기를 권하면서 더이상의 소개를 생략한다。

書評

「現代朝鮮 基礎語彙集」

梅田博之著 〈東京外国語大学 아시아·아프리카言語文化연구소刊〉

編述法등 特異하나 誤謬많아

著者는 東京大学校 言語学科 출신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언어학자 服部四郎敎授 门下에서 修学을 하고 현재 東京外国語大学 附設 아시아·아프리카 言語文化硏究所 硏究員으로 있다。대학 재학때부터 恩師인 服部四郎敎授를 도와 몇가지 著書를 낸바 있고、그 후에도 꾸준히「아시아·아프리카言語文化硏究」와「朝鮮学報」등을 통해 韓国語에관한 논문을발표하고 있는터이다。

이번 上記 著書는 著者가 1967年 부터 2年间 서울에서 韓国語 연구를위해 留学한바를 토대로해서 엮은 会話와 韓国語辞典을 겸한 著書다。4·6倍版 224面인 本著는 내용을 모두 28조로 구분하였다。人体、衣、食、住、道具 등 항목으로 細分하고 끝으로 4項目은 代名詞、副詞、接続詞、助詞、重要単語、連語等 文法的인 문제에까지 項目을배분하고있다。

또 末尾에 韓国語·日語·英語의 索引을 붙여 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筆者는 去年 5월 著者로 부터 이 著書를 받아 통독하는 도중 몇 가지 언급해야 할 문제가 発見되기에 다음에 요약해 보고자한다。

첫째는 특색있는 論述方法이다。한마디로 말해 題號같이 단순히 基礎語彙集만이 아니다。

한국어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韓国語入门의 역할은 물론이요、회화를 위한 표현방법을 곁들이고 있다。

둘째로 한 語彙에 대하여 意味說明은 물론 卑語、隱語까지를 동원하여 실제 쓰이는 경우를 会話体로 열거했다。

第1項「人体」部의 첫語彙「頭 head」를 例로 들자면、「머리」는 물론이요、「대가리」「골치」에까지 언급하고 있으며、다시 細分하여 「hair」「bald」「brain」이 나온다。그 가운데는「새치」「끝슬머리」「가마」「대머리」를 비롯하여「아이고、골치야!」「할아버지도 머리가 많이 시셨네요」「골병들겠다」에 이르기까지세심함에를 보인다。

셋째로 韓国風俗의 바닥이 完然히 들어나도록用例를 보이고 있다。즉「말(馬)」에는「말띠(午生)」까지 나오고、「송편을 이쁘게 빚으면、이쁜 딸을 낳는다」「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等 직접 韓国의 언어 이외에 역사와 풍속과 지리 등 한국의 全部를 이해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엮어내기 어려운 작업을 성공시켰다。

以上과 같은 特長點을 갖추고있는반면、다음 몇가지 點은 재고되어야 할문제가 아닌가한다。

첫째 口語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點이다。예를 들자면(괄호 안은 표준어)「-한테(에게)」「-트리다(드리다)」「노누다(나누다)」「꼬매다(꿰매다)」「이쁘다(예쁘다)」等은 著者가 序文에서 밝힌 바 現代서울方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點을 고려하더라도 韓国語入门者에게 非標準語를 습득시킬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현상은 会話에쓰이는 口語에만지나치게 치우친데서 오는결과일것이다。

둘째로 全編은 4백57항목으로 나누고 있으나 実際 項目은 이보다 훨씬 많다。

어느것은 細分番號를 붙여 20이상 나간 것이 있다。그러므로 보는 사람에게 적지않은 번잡을주어활용과 이해에 혼란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셋째로 文法的인면이다。띠어쓸데에 붙여쓴곳이 百餘処있다。이것은 日文의습관에서오는영향이라고생각되지만 文法理解에혼란을가져올것이다。

다음은 어간과 어미의 縮略問題이다。「밥져서(밥 지어서)」「꽃이 폈다(꽃이 피었다)」母音「H/ㅔ」의 混乱「-귀떼기(귀떼기)」다음「뒷골미(뒷덜미)」「다이야몬드(다이야먼드)」「고등어(고등어)」「구름(구름)」等 円唇母音化 表記도 日語의 영향같고、「곳아(꽃아)」「자구(자꾸)」「궤매다(궤매다)」「계시(계씨)」「섭시(섭씨)」等 硬音의 平音化 현상도 그렇다。

끝으로 注目되는 誤謬는 形容詞의 動詞化경향이다。「목이 마른다。(목이 마르다)」「발이 저린다。(발이 저리다)」이러한현상은「신다。(계시다)」와 同軌로서 변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나 아직은표준을 고칠수는 없는단계다。

以上으로 몇 가지 눈에 띄는 點에 관해 約述했다。바라건데 著者의 꾸준한 정진으로 더욱 내용이 충실한 快著가 統刊되어 韓国語의 해외진출에 크게 이바지되기를 바란다。글 崔範勲〈本校大学院博士課程修了、中東高校 敎師〉

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교육부

당신의 話術은 어떻습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의 人格입니다

당신은 大衆 앞에서 부끄럼없이 자신의 所信을 피력할 수있으며 對話중에 어떤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기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는 다년간 우리말을 연구하고 웅변·연설·대화·PR방법,정견발표,말더듬에 대하여 특수 교육을 지도하고 있읍니다

이제 당신은 곧 對話에 자신을 갖게 되실것이며 새로운 野望에 불탈 것입니다

연구생모집중!

연구생모집중 242기 마감박두!

◎웅변 ◎연설
◎리더쉽 ◎토론
◎회의 ◎사교대화
◎유모어 ◎윗트
◎음성교정 ◎정견발표
◎방송언어 ◎좌담

1, 정원: 50명(각반10명)

2, 강사:

<연설>전국 웅변대회에서 50여회 특상한 현역연사및 저명인사

<말더듬>특수 개인 지도… 4주내에 완치

문의전화 26—4633

안내

특히「내일의 지도자」가 되려는분과「언어장애」를 느끼는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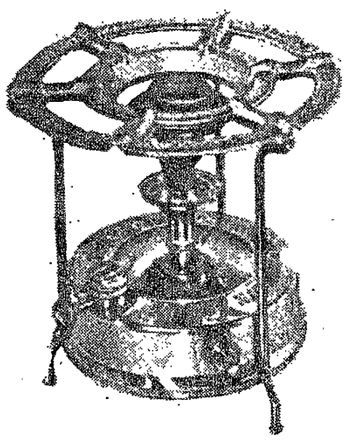
▼상담실▼

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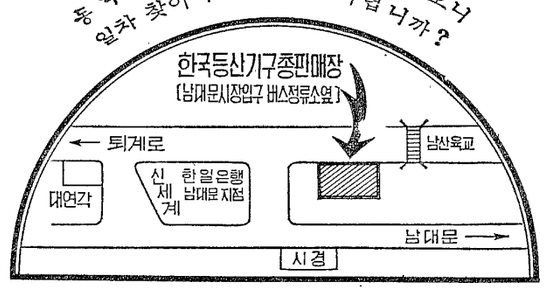
서울중구충무로3가56의15 (스카라 극장 뒷편 스타다방 앞)

한국등산기구총판매장

스웨덴 석유바나



금번 한국등산기구 총판매장에서는 개업3주년을맞이하여 각종 등산장비 일체를 구비하고 평소에 폐점을 아껴주심에 보답코자 동국대학생여러분께 특별봉사하오니 일차 찾아주시지 않으시렵니까?



₩ 6.000

TEL 24-4077·4119

약수

◇—단 편 소 설 <5>

글• 李 雲 源

그림• 沈 俊

『남광 책을 손꼽고 찾수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지요. 봉하필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날은 아침보 안 먹고 학교에가는 대신 한참에 곁이가서 학부를 보냈지요. 저도에 봉되친구들이 나를 부르더군요. 약수터에 잤습니다. 집에서 조금도 내 마음이 불리지 않았나 봐요.

약수를 마시는데 한 이이가 들고온 주전자를 흔들어 보이며 웃었지요. 주전자 속에는 손주가 들어 있었 습니다。그날 하지 나는 솥이라뀌 입에대보지도 않았지요。투잔을 떠었을까요、하얀이 빨뭘 돌면서 분이 자꾸 갑기더군요。남람이 진지솥의 선 (線) 모양을 머리 속을 월월 불고가며 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한참 있다가 어렐풋이 누구의 봉에 엽혀 산을 넉려가는 것을 알았지 나는 보 정신을 잃었습니다。〃아이구、어림 지수이 절저부터 차잔을 구경하러오셨 나보군요。그나저나 이름이 뭐예요?〃

그러나 접을나는 낚 이지수를 식별하보 의 환한불빛이 떼 석간을 구경하고있 었 다。

『나말이요?』

나는보이며 대답했습니다。그때 하는 수 없이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송이 휘해석…쑹쑷스나는 뭥 돌림란속 할들의 숭젔거릴 속에 6자의 형차입 니다。

말씀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을때 한 송이로 찍 이마를 젔은 아버지의 기도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낸 팔목에는 맥박이 뛰고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열물이 하얗게 젊리며 정신을 잃은 나를 업고이런 친구들이 밤 봉이 떠 봉되 떠들과 싹을을 하다가 정신이 말떰으니까 나를 집부담에 뛰려고 모두 보맞을 쳐 버리고 말았다더군요。

김형석은 들고 있던 소주잔을 쭉비우더니 나를 돌아보며 정시 웃었다。

『백살의 껍 에서 젖음 만나면 말나에게 보이면 친진한 수년의 웃음과같 았다。

『그날 그렇게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번에는 제 첫 가출 (家出) 이야기를 마저 볼려주드냐서 더합하지요。』

그는 내 말을 자르며 그는 빈 소주잔을 내밀었다。잔을 받으며그는 다시 소주를 가득 부어주었다。나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술병을 들어 가득 부었었다。우리 둘은 연거푸 석잔을 마셨다。

『어린나이스를 완분으로 석을영역서 기억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정석=『리저렐돌』이 원화이 의 시작점이 되어가 다섯째 해이다。그때 나는 중학교 일학년이었 다。그해 10월달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리저렐돌』이 왔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 시간의 「리미나」 내용을 모두 소주、학생들의 선택 연구합니다。보한피수는 그 기를을 시킵니다。학기초에 시작하여 학기말에 끄 봉사」 내용이일 목요일마다。

학생들이 「리저렐돌」 에 긴장한 책이 도서 관에 미치지 않았을 때라보 특일년대의 미국이김 3주일후에는 필요한 서적을 이용자가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문·사회·장연과학부문별로 신간서적이 구입되는대로 뒤표기본서적 목록을 게재진문에 발표합니다。

▲도서관장=대학에 있어서 도서관의 위치는 교수나 학생들의 연구·활동과 직결됩니다。운영면에있어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이용자의 봉사자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장=대학에 있어서 도서관의 위치는 교수나 학생들의 연구·활동과 직결됩니다。운영면에있어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이용자의 봉사자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이번 좌담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행정된 제8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보다나은 도서관、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바쁘신 쑹에도 참석해 주셔서감사합니다。

▲도서관장=대학에 있어서 도서관의 위치는 교수나 학생들의 연구·활동과 직결됩니다。운영면에있어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이용자의 봉사자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본교 도서관에게 대하여 이용자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본도서관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이용의 필요점과 의욕을고취시키기위해 의무적인 학과의 도서관 실태를 파악、분석하는 한편 회람보저함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차람숭을만들어 보통 시험기간을 전후하여 도서관이 붐비고 있는데 금년에는 학기초부터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있습니다。오스음 하루평균 2백권에서 2백50권이 반의대출되고 있습니다。

1층전시실에서는 각종신간서적 등 신문、잡지、정기간행물이 입수되는대로 이용자들에게 봉사합니다。

그런데 학교도서나 정기간행물류에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반도서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정석=도서관은 책을 읽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무엇보다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영=대학의 도서관은 학생들의 「큐티」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석=도서관은 학생들의 「큐티」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영=제가 어느곳 도서관의 책임을 맡고있을 때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빌려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이정석=도서관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